

농식품부, ‘농식품 금융투자 로드쇼’ 개최



▲농식품부 차관, 금융투자로드쇼 현장 사진

농식품 기업·투자사·기업·유관 공공기관 등 300여 명 참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기업의 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와 대기업, 글로벌 유통기업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서울에서 농식품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대기업·해외기업 등이 참여하는 ‘2026 농식품 금융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의 가능성, 세계시장과 투자로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농식품 투자 분야의 글로벌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농식품 기업이 투자자와 직접 만나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식품 기업 50개사를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과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식품 대기업, 글로벌 유통 바이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대기업 멘토링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

용한 해외 판매 상담 △KOTRA 등 무역 관련 공공기관과 수출상담 △VC·AC와 투자 상담 등 4개 분야에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오리온, 풀무원, 롯데칠성 등 주요 식품 대기업도 참여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사업 확대를 위한 상담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21개 농식품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시연회도 열렸다.

기업과 투자자, 유통사, 관계기

관 관계자들은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과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농식품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농식품 모태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농식품 투자 생태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금융투자 로드쇼가 농식품 기업에는 실질적인 투자 유치의 기회가 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상생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ontimes.com

농진청, 신품종 ‘찰진 밥맛 케이롱’ 보급

2026년 시범단지 조성 거쳐 2028년부터 농가 보급 추진

농촌진흥청이 길고 가름한 쌀알에 한국 쌀 특유의 찰지고 부드러운 밥맛을 갖춘 장원형 자포니카 벼 신품종 ‘케이롱’ 보급 확대에 나섰다.

농진청은 국내 쌀 소비처를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장원형 벼 신품종 ‘케이롱’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장원형 벼는 현미의 길이와 너비 비율인 장폭비가 2.50~2.99인 벼로, 일반적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장립종 쌀의 외형을 갖추면서 자포니카 계열의 밥맛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케이롱’의 현미 길이는 6.77mm, 장폭비는 2.63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자포니카 품종 가운데 가장 길고 가름한 장원



▲농촌진흥청 제공

형에 해당한다.

특히 아밀로스 함량은 18.1%, 단백질 함량은 5.5%로 장립종 쌀의 외관과 한국 쌀 특유의 찰지고 부드러운 밥맛을 함께 갖췄다.

농진청은 앞서 2022년 국내 최초 장원형 벼인 ‘아미쌀’을 당진시 특화 품종으로 개발해 보급했다. ‘아미쌀’은 당진 ‘미

소미’로 싱가포르, 네덜란드, 캐나다, 몽골 등 4개국에 누적 105톤이 수출됐다.

‘케이롱’은 ‘아미쌀’보다 쓰러짐과 병에 강하고 재배 적응지역도 넓어진 것이 장점이다. 벼 키가 77cm로 비교적 작아 강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쓰러짐에 강하며, 벼흰잎마름병 K1~K3 균계와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특성을 보인다. 카다리병에도 중도 저항성을 나타내 재배 안정성을 높였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올해 충남 당진에 5ha 규모의 장립종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케이롱’을 재배하고 있다. 시범사업과 종자 증식 과정을 거쳐 2028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종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계적 식재료 가장 가까이에, 한돈

“BBC선정 슈퍼푸드
돼지기름인데!
한돈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네요”



한돈 홍보대사 **안성재**

 **투명한 한돈!**
유통 단계별 정보의 투명한 기록, 관리 공개로 믿을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렇게

 **합리적인 한돈!**
한돈자조금이 인증한 최고 품질의 한돈을 부담없이 구매 가능한 소량몰

 **안전한 한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으로 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

 **한돈몰 돼지고기 구입은 한돈몰**
문의 **1670-1045** (한돈사요)



▲조직문화 우수사례 시상

농어촌공사, ‘청렴·존중’ 조직문화 혁신

임직원 500여 명 참여…우수사례 공유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렴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를 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일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과 김은식 노동조합 위원장, 윤소하 상임감사 등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RC Clean Wave(케이알씨 클린 웨이브) 시즌2’ 선포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KRC Clean Wave’는 청렴과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혁신 브랜드다.

개인의 변화에서 조직의 변화, 모두의 변화로 이어지는 3개년 계획으로, 지난해 ‘개인의 변화’에 이어 올해는 ‘조직의 변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공사는 시즌2의 4대 추진 방향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KRC ▲서로를 이해하는 KRC ▲지켜주고 자랑하는 KRC ▲공정한 시스템의 KRC를 설정하고 15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인사 공정성을 높이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고·상담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조직문화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전남지역본부는 기관 사칭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칭예방센터’를 구축하고, 접수된 의심사례 20건에 대응해 실제 피해를 예방한 사례를 소개했다.

우수상을 받은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분양업무 전 과정에서 불공정 요인을 차단한 사례를, 전북지역본부 동진지사는 농지은행 인공지능 음성상

담을 도입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업무 과정에서 청렴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제도와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진 노사 합동 선포식에서는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상임감사, 인권리더 대표, 청년이사 등 5개 주체가 4대 추진 방향의 실천을 함께 다짐했다.

공사는 현장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할 인권리더 20명도 새롭게 임명했다.

공사는 9월 한 달을 ‘클린 웨이브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이어간다. 주차별로 양성평등, 윤리·인권, 경영진과 현장부서 간 청렴톡(Talk) 등을 주제로 인권영화 상영회와 인권침해 모의훈련, 양성평등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ontimes.com